

제 목	국 문	해방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영 문	Trends of Study and Classification of Re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Korea after Liber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하은희 ¹⁾ , 박혜숙 ¹⁾ , 김영복 ¹⁾ , 송현종 ²⁾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과 ²⁾						
	영 문	Eun Hee, Ha ¹⁾ , Hye Sook, Park ¹⁾ , Young Bok, Kim. ¹⁾ Hyun Jong, Song. ²⁾ Dept. of Preventive Medicine ¹⁾ & Dept. of Health Education ²⁾ , Ewha Womans University						
분 야	환경		발 표 자	하 은 희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199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산업장 보건관리사업이 강화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보건관리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행정체제의 재정비 및 산업보건연구원, 학회의 설립에 따라 산업보건관리영역의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1993년에 개최된 대한예방의학회(43차 추계학회)에서 처음으로 환경 및 산업보건분야에 '산업관리' 영역이 새로이 분류되어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내용면에서 다른 분야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며 대한산업의학회에서 조차도 구분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45년에서 1994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분류함으로써 해방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용어의 정의								
(1) 1차자료 : 원래의 연구성과 정보를 기록한 자료(이화여자대학교, 1993)								
(2) 2차자료 : 1차자료를 찾기 위한 자료 혹은 1차자료를 농축, 정리한 자료(이화여자대학교, 1994)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기간행물기사색인(국회도서관, 1945-1994)에 정리된 산업보건영역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제1단계: 2차자료 검색, 제2단계: 1차자료 수집 및 고찰, 제3단계: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제4단계: 종합 분석 및 토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1) 학술지별 문헌분류

본 연구에서 고찰한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차자료인 문헌의 수는 총 510편이었으며 연도별로 본 문헌의 수는 1956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1988년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지별로는 대한산업의학회지(18.2%), 한국의 산업의학(15.1%), 예방의학회지(15.1%)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내용별 문헌분류

연구내용은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477편(93.5%)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33편(6.5%)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보건자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15편(45.5%), 산업보건재원조달체계 8편(24.2%), 산업보건관리운영체계 6편(18.2%), 산업보건조직체계 3편(9.1%), 산업보건서비스전달체계 1편(3.0%)의 순이었으며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는 질병관리 269편(57.2%), 보건관리 116편(24.7%), 작업환경관리 85편(18.1%)으로 질병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대상별로는 일반근로자 대상이 185편(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근로자, 전문직, 서비스근로자 순이었다.

3)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

산업보건관리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업장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등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내용, 성인병 및 직업병 의뢰체계, 산업보건조직 등에 관한 산업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분석 등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4) 산업보건관리영역의 향후 연구방향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27.1%), 정보망구축에 관한 연구등 산업보건체계에 관한 연구(8.3%)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면역분석, 산업보건사업평가, 유해물질폭로평가,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고 찰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4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8년 대한산업의학회의 설립과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도 직업병 실태와 건강관련 행태 및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경우도 대부분 인력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어 산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때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현실적인 연구는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참여, 경제성분석, 보건사업후 평가, 산업역학을 활용한 연구방법론 등의 연구들도 산업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